

읽을만한 법학교양서 의외로 많다

어렵다고 기피하는 잘못된 선입관 떨쳐버려야

최종고

서울대 법대 교수

법학서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교과서와 수험서를 연상하게 되지만 알고 보면 적지 않은 교양서들도 출간되고 있다. 법학은 인간의 가능한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에 걸친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이론과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 서양에서는 15세기부터 학문으로 정착되어 수많은 명저들이 있어 번역서도 풍부할 수 있고, 한국법학도 개화기 이후 1세기의 역사를 가다듬고 있어 법학서의 출간은 분량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기본 六法の 교과서와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한 수험서들이라 '교양'과는 거리감을 느끼게 하였다. 최근 법과대학들이 이를 반성하고 법학교양교육을 강화하여 '법학교양강독' '법과 문학' '법과 윤리' '법과 민주주의' '법과 사회' '법과 정치' '법과 경제' '생활과 법률' '여성법' 등 다양한 과목들을 개발하고 이와 맥을 같이하여 여러가지 형태와 내용의 법학서들이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학 자체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법의 생활화나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바람직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일반 독자층의 수준이 높아져 법에 관한 책들도 상당히 찾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출판물들의 현황을 보면, 본격적으로 '법학교양총서'를 기획하여 3년사이에 30종의 책을 출간한 교육과학사의 노력이 돋보인다. 법학서적을 많이 낸 출판사들도 하지 못한 한국최초의 기획으로 이만큼 기여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총서에서 눈에 띄는 책으로 「한국법과 세계법」(최종고), 「법격언집」, 「한국법학의 증언」(김중환), 「서양인이 본 한국법속(法俗)」(하멜 외) 「동서양의 법문화」(고광림) 「착한 사마리아인법」(C. 그레고리 외), 「사법시험, 무엇이 문제인가」(최종고), 「하버드 로스쿨」(최종고), 「유럽법학의 생태」(슈미트/김효전), 「인권」(한상범), 「헌법의 수호자전쟁」(슈미트·켈젠), 「국제인권법개론」(양건·김재원), 「비교헌법론」(김효전), 「복지국가의 기원」(전광석) 등이 보인다. 이외에도 아래의 장로별로 언급할 각 분야에 걸친 법학교양서들이 이 총서에 포함되어 있다. 부피가 그리 두껍지 않은 문고판으로 기획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줄인 것도 좋게 보인다.

대학출판부들에서 내는 총서에도 법학교양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대출판부의 '대

학교양총서'에도 「법과 사회정의」(김철수), 「현대법학의 이해」(최종고),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박병호), 「한국의 법학자」(최종고) 등이 보인다. 연세대출판부의 '교양총서'에도 「신자유주의와 법」(하이테크/양승두·정순훈), 「국제법과 독립국」(테루피스/김정건) 등이 보이고, 성균관대출판부의 '수선교양총서'에도 「현대상사법의 과제」(쉬미트프/이범찬) 등이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출판부의 교양총서에 법학서가 개발될 여지는 많이 남겨두고 있어, 출판사와 법학자들간의 협력과 공동기획이 요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영사, 법문사, 삼영사 등 법학서를 많이 내는 출판사들도 교과서만이 아니라 교양서적도 개발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겠다.

법학교양서란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논의할 수 있겠지만, 필자의 책 「현대법학의 이해」(서울대출판부)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70여종의 서적을 아래에 서술하는 순서대로 분류해본 바 있다. 특히 방학때가 되면 학생들이 찾아와 「산이나 강에서 읽을 수 있는 법학서」를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번번이 말로 하기가 귀찮아서 만들어본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법과 철학, 법과 종교에 관하여는 본격적으로 학문화하면 법철학, 法神學의 연구영역을 이루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나온 다소 부드러운 교양서로는 「법과 정의의 철학」(페를만), 「법철학적 인간학」(이항녕), 「법철학의 근본문제」(김병규), 「법학의 정신」(라드브루흐), 「법과 종교와 인간」(최종고), 「법철학사와 자연법론」(이태재), 「현대 법철학의 근본문제」(카우프만), 「정당한 법의 원리」(라렌츠), 「자연법사상」(박은정), 「법과 종교와 사회생활」(다나가 고타로/정중휴), 「법의 신학적 기초」(자크 엘룰/한상범) 등의 책들이 보인다. 법학교양서로서의 이 방면의 출판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의의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라 아니할 수 없다. 요즘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간동최, 사형, 뇌사 등 구체적인 문제를 포함한 '법과윤리'의 분야에 관한 저술이 없는 것은 아쉽게 생각된다.

동양어의 '思想'이란 말이 심오하고 한국에서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과 사상도 法思想史學의 연구영역을 형성하여 적지 않은 서적이 출간되고 있다. 눈에 띄는 책으로 「법사상사」(최종고), 「위대한 법사상



가들 I, II, III」(최종고), 「한국법사상사」(최종고), 「한국근대법사상사」(전봉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사회주의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공산주의법이론」(켈젠/장경학), 「자본주의와 헌법」(국순옥), 「공산주의와 법」(콜린즈/홍준형), 「자본주의법과 사회주의법」(버틀러/박홍규), 「맑스와 엥겔스는 법을 어떻게 보았는가」(케인·헌트), 「법·국가·저발전」(한인섭·이철우), 「실천법학입문」(조국) 등이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사회주의 법사상의 변화에 관한 저술도 기대된다.

法史學의 영역은 광범한데, 교양적인 책으로 출간된 것은 「법사학입문」(김상용·최종고),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박병호), 「한국의 법」(박병호), 「한국의 서양법 수용사」(최종고), 「법사(法史)와 법사상」(최종고), 「독일 법제사」(코잉), 「한국법의 실상과 허상」(문인구), 「끝나지 않은 법정」(김태오) 등이 있다. 교양서로서 개발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영역으로 보인다.

법사회학, 법정치학의 영역도 있지만, 교양적 차원의 책으로는 「법과 사회」(프리드만/박남규), 「법은 누구편인가」(겔로웨이), 「권리를 위한 투쟁」(예에링), 「법·인간·인권」(김일수), 「법사회학」(양건), 「미국법입문」(프리드만/안경환) 법과 사회이론연구회에서 내는 무크誌 「법과사회」도 교양서로서의 의의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학 속의 법을 다룬 「법률과 문학」(장경학), 「법률준향전」(장경학), 법과 문학의 이론을 설명한 「법이라는 이름의 電車」(안경환), 법과 시(詩)를 연결시킨 「법속에서 詩속에서」(최종고), 법조계를 무대로 한 소설 「하안나라

까만나라」(윤상일), 그리고 「법과 유모어」(최종고) 등이 보인다. 법률가의 수필집으로 「무상을 넘어서」(김홍섭), 「법과 인간의 향연」(한승헌), 「미니스커트와 법정」(오석락), 「보이지 않는 법정」(오석락), 「법은 사랑처럼」(안경환), 「여유와 향기」(고광우), 「법은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 빛난다」(최종고), 「변호사의 길」(김이조) 등이 보인다. 최근에는 한국법학원에서 「생명의 쇠줄」이라는 제목으로 법률가들의 생활수필을 모아내었는데,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 하여 뜻깊은 계획으로 보여진다.

법률가의 전기로는 「마음의 길」(라드브루흐), 「올리버 호즈판사」(존우 외), 「동서의 피안」(吳經態) 등 번역서도 있고, 「사도법관 김홍섭」(최종고), 「가인 김병로평전」(김학준), 「애산 이인」(최영희), 「법에 사는 사람들」(이영근 외), 「사진으로 본 세계의 법학자」(최종고), 「정구영회고록」(정구영), 「헌법기초회고록」(유진오) 등의 책들이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법학교양서적은 폭넓고 흥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책제목에 법이란 글자만 들어도 '골치아프다'고 기피하는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어 판매량은 그리 높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50년대, 60년대보다 70년대, 80년대에 법학교양서의 출판이 불황이었던 것이 그 증거인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활기를 띠는 이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주목된다. 법치주의와 문화국가의 건설을 위해 법학교양서의 출간이 성공적이기를 기원한다.